

지역 소식 통



정읍시, 제23회 늘푸른
청소년문화제' 성료

정읍시가 지난 11일 청소년과 시민 3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제23회 늘푸른 청소년문화제'를 열어 청소년들의 문화예술 재능을 선보였다. 정읍체육관에서 열린 '2026년 제23회 늘푸른 청소년문화제'는 정읍시가 주최하고 한국BBS 전북연맹 정읍시지회(회장 이병옥)가 주관했다. 행사는 청소년현장 낭독으로 시작했다. 이어 청소년 지도·보호·육성 유공자 4명과 모범 청소년 4명에게 정읍시장 표창을 수여했다. 모범 청소년에는 정읍여자고등학교 박민채, 정읍고등학교 이예을, 왕선여자고등학교 김지영, 정일중학교 이민호 학생이 선정됐다. 이어진 춤과 노래, 대중음악 록 밴드 경연에는 '투프로드'가 완성을 높은 공연으로 대상을 차지했다. '모먼트 엠(Moment M)'의 금관 5중주 축하 공연도 펼쳐져 관람객들에게 색다른 즐거움을 선사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 지역사회서비스
가사간병 제공기관 점검

정읍시가 지역사회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고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오는 16일부터 8월 18일까지 제공기관 17곳을 현장 점검한다. 대상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제공기관 16곳과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제공기관 1곳이다. 이번 점검은 사업 운영의 적정성을 확인하고 지원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 수급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점검을 통해 시민들이 더욱 안전하고 질 높은 사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함께 여는 미래, 도약하는 고창’

심덕섭 군수, 민선 9기 첫 기자간담회서 슬로건 · 1번 공약 선정내용 밝혀

“군민과 소통 늘리고, 농어촌 기본소득 추진 등 도시의 지속가능성 높일 것”



14일 심덕섭 군수는 이날 오전 군청 제2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선9기 군정 슬로건과 공약내용 등을 설명했다.

람은 고창에 머물며, 안정적인 생활 서비스가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고창역 신설을 핵심으로 한 서해안 철도망의 국가계획 반영,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군민활력지원금 지급(1인당 30만원씩, 추석전 지급목표), 신립 종돈사업소 이전 등도 최종 공약에 포함됐다. 특히 오는 27일 오후 고창황윤석도서관에선 고창 군민의 마음을 듣는 ‘타운홀미팅’도 열린다. 행사 참여를

인터넷과 방문접수 등으로 다양화하면서 있는 그대로의 생생한 의견이 전달될 예정이다. 심덕섭 군수는 “군민들께 민선 9기의 비전과 목표, 정책방향을 말씀드리고, 참여하신 군민들의 질문에 즉석으로 답해드리는 열린 소통의 장이 될 것이다”며 “남녀노소 각계각층의 생생한 의견이 나오길 기대하며, 마음을 다하는 충실한 답변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고창=김영식 기자

‘부안해뜰마루 계절 물놀이장’ 25일 개장

내달 14일 21일간 가동 1회 750명 1일 최대 1500명 수용

유수풀 · 에어풀장 등 시설 완비... 어린이 청량 쉼터 제공



부안군(군수 권익현)은 여름철 무더위를 시원하게 날려줄 부안해뜰마루 계절 물놀이장의 단장을 마치고 오는 25일 오전 9시 40분 개장식과 함께 본격적인 운영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부안해뜰마루 자연마당 일원에서 개최되는 해뜰마루 계절 물놀이장 개장식은 어린이 대표단이 주요 내빈들과 함께 직접 참여하는 테이프 커팅식으로 공식 개장 선언을 한다. 특히 공식 행사 이후에는 가족 단위 이용객들을 위해 레크리에이션과 최문석 미술사의 식후 축하공연이 화려하게 펼쳐져 주민 중심의 신나는 축제 분위기를 더할 예정이다. 올해 처음 운영되는 부안해뜰마루 계절 물놀이장은 개장 당일인 오는 25일부터 8월 14일까지 21일간 휴일 없이 연속 운영할 계획이다. 군은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립식 풀장 및 유수풀을 비롯해 에어풀장, 에어바운스, 에어폴존(에어컨 컨테이너), 탈의실, 샤워장, 몽골텐트 쉼터 등 편의시설을 모두 완비했다.

운영 시간은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며 깨끗한 수질 관리와 안전 확보를 위해 매시 45분 가동 후 15분간 정비 시간을 갖는 방식으로 하루 총 5회 운영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오후 12시부터 1시까지 60분간은 가동이 잠시 중지할 계획이다. 또 1회 적정 수용인원을 750명으로 제한하고 오전·오후 분리 운영을 통해 1일 최대 1500명까지 수용할 계획이다. 마지막 회차 종료 후에는 안전요원의 안내에 따라 이용객들이 순차적으로 퇴장하게 된다. 권익현 군수는 “아이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사고 없는 안전 물놀이장을 위해 개장 전까지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정읍시, 건물위생관리사 2급 양성과정 수료

14명 전원 자격증 취득



정읍시와 정읍시지역활력센터가 운영한 건물위생관리사 양성과정 교육생 14명이 전원 자격검정에 합격했다. 시는 지난 12일 정읍역 달하노파공컨퍼런스센터에서 도시재생 아카데미의 하나로 운영한 ‘건물위생관리사 2급 양성과정’ 수료식을 개최했다. 이번 교육은 지역 주민들이 건축물 위생·방역 분야의 전문지식과 실무능력을 갖춘 관리 인력으로 성장 지원을 위해 마련됐다. 관련 분야의 취업과 창업 등에도 목적을 뒀다.

교육에는 건물 위생과 방역에 관심이 있거나 자격 취득 후 취업·창업에 희망하는 정읍시민 14명이 참여했다. 교육생 전원이 모든 과정을 수료했으며, 자격검정에도 합격해 건물위생관리사 2급 자격증을 취득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고창 운곡람사르습지, 명품 생태관광지 입증... 9년 연속 최우수등급

고창군 운곡람사르습지가 전북특별자치도 주관 생태관광지 시군 평가에서 최고 등급을 받으며 전북도 내 유일 9년 연속 최우수(S등급)라는 대기록을 달성했다. 이번 평가에서는 고창군이 운영 중인 생태관광 프로그램 전반에 대해 “매우 우수하다”며 찬사를 보냈다. 고창군이 주민협의체인 ‘고창군생태관광주민사회적협동조합’과 함께 추진한 ‘주민 구슬 기록화 사업’이 단연 돋보였다는 평이다. 심사위원단은 ‘문

화인류학적으로나 학술적으로 가치가 매우 높다”라며 극찬했다. 이와 함께 운곡습지마을 주민들은 자발적으로 습지 모니터링과 생태계 교란식물 제거에 앞장서는 한편, 지역 농특산물을 활용한 오베이글 마을장터, 반딧불이 생태관광, 운곡습지학교 운영 및 습지 생태도감 발간 등 다채로운 주민 주도형 사업을 성공적으로 정착시켜 생태계 보호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이뤄냈다.

/고창=김영식 기자

정읍시, 시내버스 노선 개편 위해 시민 의견 수렴

21일까지 정읍시 홈페이지 소통방 통해 의견 조사... 조사 결과 노선 개편안에 반영

정읍시가 오는 21일까지 시내버스 노선 개편을 위한 주민 의견조사를 진행해 시민 불편과 개선 요구를 반영한다. 조사는 시민들의 참여 편의를 높이기 위해 온라인과 현장(오프라인) 방식을 병행한다. 온라인 조사는 정읍시 누리집(홈페이지) 내 소통방을 통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현장 조사는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마을별 이·통장 1명과 시내버스를 자주 이용하는 주민 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조사 항목은 거주 읍·면·동과 연령대, 버스 이용 빈도와 목적, 노선 조정 필요 구간, 운행 시간 개선 요구, 배차 간격 등이다. 시는 시민의 실제 이용 경험을 바탕으로 생활과 밀접한 의견을 수렴하는

데 중점을 둘 방침이다. 시는 도시 여건과 생활권 이동 양상(패턴)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시내버스 노선 체계 개선을 추진해 왔다. 시내버스 노선 개편 전담반(TF)을 구성하고 최근 3년간 민원이 집중된 노선을 중심으로 실차 조사를 진행했다. 현재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마련한 임시 노선 개편안을 시범 운행하면서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확인하고 운행 효과를 분석하고 있다. 시는 이번 의견조사에서 확인한 시민 불편과 개선 요구를 종합해 최종 노선 개편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출퇴근과 통학, 병원·시장 등 주요 생활권으로 이동하는 시민의 편의를 높이고 교통 취약지역의 접근성도 함께 개선한다.

교통 수요와 생활권, 노선별 운행 현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순환형·맞춤형 노선 체계도 마련할 방침이다. 이학수 시장은 “시내버스는 시민 일상과 가장 밀접한 교통수단인 만큼 시민들의 의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민선 9기 약속대로 시민들의 교통 불편을 반드시 개선하겠다”고 강조하며 노선 체계 개편을 특별 지시했다. 시 관계자는 “시민 의견을 우선 반영하고 현행 노선의 운영 실태와 교통취약 노선을 면밀하게 분석해 인구 감소 대응형 대중교통 운영 모형을 구축하겠다”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편리하고 효율적인 노선 체계가 마련되도록 이번 조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